

**동우컬럼**

정직해야 산다

거짓말은 대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시작된다. 불리한 상황을 벗어나고, 살고 싶은 마음에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 살고 싶다면, 진정 위기를 모면하고 싶다면 어렵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은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모든 사람과 육축까지 죽이라고 하셨건만(삼상15:3), 야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 중에 좋은 것을 죽이지 않고 남겼다. 사무엘이 이를 알고 추궁하자 그는 거짓말로 둘러댔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삼상15:15)라고. 사울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그 거짓말로 살아났는가? 궁지에서 벗어났는가? No!

다윗은 충신인 우리아의 처를 범하고, 우리아의 처인 밋세바가 수태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수를 쓰다가 그제 먹이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의 최전선에 보내어 죽게 한다. 이를 하나님이 다 보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다윗을 책망하자 다윗은 바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삼하12:13) 이 실직고한다. 거짓말로 둘러대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용서받아 살아났다. 진실이 그를 살린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눈 깜짝일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잠12:19).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잠12:22).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 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5:1)는 말씀이 있다. 무슨 말인가? 진실한 자를 찾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요즘 우리는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많이 본다. 살고자 그러겠지. 그러나 진정 살려면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라. 해 아래 아니 드러나는 것은 없다(눅8:17).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추랴. 거짓을 버리고 진실되자.

협력의 구도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

우리는 12차에 걸쳐 국가와 민족을 위
한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개최해왔습니
다. 2013년 부천체육관을 시작으로 지
난해 서울시청광장 집회까지 목사님 표
현처럼 통일을 향한 12번째 교각을 놓
았습니다. 우리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이
한반도의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적
통일이겠지만, 그전에 우리 앞에 놓인 난
제들이 산적합니다.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시듯이, 디모데전서 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

및 투자 으뜸장에 적극 대처해야 하는 때
 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
 리 경제 및 산업 전체에 심대한 타격이
 가해질 결정들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받
 드시,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여, 아를
 떠나서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이 난세
 를 극복하는 지혜와 힘과 의지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전쟁과 기아와 금융위기 등을 극복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힘을 합해 난관을 극복해 온 저력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힘을 합해 의지를 보일 때, 하나님도 우리나라를 도우실 것이고, 열강을 비롯한 세계도 우리의 자세를 보고 돕게 될 것입니다.

한데 모아 국가와 민족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이 2050년, 2070년, 2100년의
도전과 비전을 주시고, 저 김일성광장에
서, 저 천안문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그날
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꿈이
아닌 현실로 우리 미래에 목도할 수 있
려면, 지금 우리의 기도와 노력이 밑바탕
되어야 합니다.

미국과의 관세 및 투자 협상에서 반드시 최선의 결과를 내서 우리 앞에 드리운 경제적 불확실성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 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서 한반도 리스크 역시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경제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좁은 국토에 자원도 없는 이 나라



제 12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광경 (2024년 10월 9일 서울시청광장)

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딤후 2:1~2). 로마서 13장에 기록되어 있듯이 권세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롬 13:1). 따라서 아무리 나의 정치적 지향과 호불호가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협력의 자세로 힘을 모으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도리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우리 교단을 통해 12차에 걸쳐 기도성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가장 위대한 사람은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노량진에 모여, 또한 지교회에는 각 지교회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합심기도의 위력은 실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해외집회 현장에 나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직접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에너지를

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갈 나라입니다. 어떤 개인의 나라도, 어떤 권력자나 재력가의 나라도 아니요, 우리 모두가 세대를 이어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나라입니다. 목사님이 꿈꾸시듯, 우리 젊은이들이 결코 전쟁의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평화통일을 이루고, 세계가 본받고 싶어 하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로운 경제와 문화가 꽃피는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뜻을 합하여 기도하고 기도합시다.

한은택 목사

추계산상집회

* 날짜 : 2025년 11월 3일(월)~6일(목)
* 장소 :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 문의 : 02. 533. 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사43:16~20)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

70 넘게 살면서 터득한 행로법칙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가다 보면 새로운 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번 엘살바도르 집회가 그랬습니다. 당초 얘기하던 것과는 다르게 막상 가보니 전혀 집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 다. 집회 장소조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으니 막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렇다 고 지구 반 바퀴를 돌아 돌아왔는데 마냥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기도하고 길을 찾으니 길이 있습니 다. 길이 열립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광고를 시작했고, 경찰청과 연결이 되어 그곳에서 세미나를 하게 되었고, 작은 운동장이지만 집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길이 막힌 곳에 하나님 이 새 길을 내신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혔을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출14:21~22)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던 길,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왔습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 도저히 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다 죽는구나.’ 생각할 때 하나님은 막다른 길에서 새 길을 내셨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시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새 길을 여셨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누가 바다가 열리리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 여호와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내어 그들이 일시에 앞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사43:16~20)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만이라는 자 때문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제로 왕의 권세를 이용해 유다 민족을 몰살하려고 했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았습니다. 이를 피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에스터를 왕후의 자리로 세우셔서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 준비해놓으셨고, 아하수제로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일기를 보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 일기에는 모르드개가 왕의 생명을 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지 웬니까(에6:1~3). 이것이 계기가 되어 모르드개가 높아지고 하만의 음모가 드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부림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막다른 길에 도달한 유다 백성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



총회장 이초석 목사

주이십니다. 만물과 만인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 하나 못 만드시겠습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사43:15).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도단성에 가 있을 때, 아람왕이 엘리사를 사로잡으려고 군대를 파견하여 밤새도록 도단성을 첩첩이 둘러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밖에 나가보니 성 밖에 아람 군대가 첩첩이 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게하시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 방안에 기여들어 와서는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도단성 주위에 아람 군사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라고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말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 즉시 게하시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잔뜩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기도하기를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니,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성에 다 가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람왕의 군대가 둘러쌀기 전에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여 이미 길을 내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게하시처럼 눈이 가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88올림픽 기념행사로 사용할 체육관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배드릴 곳이 없는 겁니다. 난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낮습니다. 기도하면 막힌 길이 뚫리고, 새 길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홍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찌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46:1~3).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삼상2:6~7).
바울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롬4:17)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주 삼라만상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한 마디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그 하나님이 일하시면 만사형통이요, 난사형통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다

힘들니까? 병들었습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자식 때문에 고민입니까? 사업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보세요. 울부짖어 기도해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당신의 부르짖음에, 당신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창21:16).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20 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살다 보면 홍해 앞에 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앞은 막히고, 뒤는 좁혀오는 위기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서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사방이 우겨쌌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갈의 눈에 샘이 보이듯, 게하시 눈에 불말과 불수레를 탄 천군천사가 보이듯 새 길이 보일 것입니다. 길이 끊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감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예보에 없던 큰비가 내려 수해가 나는 바람에 모든 행사가 취소되었고, 우리가 본래 쓰던 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고전2:9).
절체절명, 사면초가, 진퇴양난, 속수무책 일 때 우리가 할 일은 낙담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고, 막혔던 길을 뚫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50:15), “여호와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나1:7).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해하겠습니까(롬8:31)?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감히 누가 덤비겠습니까?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주님이 주신 평강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평안이 있다. 성령께서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두려움과 근심 속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조금 잘되고 풍부해지면 교만해져서 열심이 다 식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일이 잘 풀릴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려운 때를 만나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다. 모두가 풍부의 길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다. 만사가 형통할 때 교만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소망을 품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다.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신6:11~12).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고후4:17).

사도 바울은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자족하는 삶을 살았다.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풍부에 처해 있다는 것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의미이고, 비전에 처해 있다는 것은 새롭게 받을 은혜가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한다. 비전에 처하든지 풍부에 처하든지 아무래도 상관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이다.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안에서 누리는 기쁨, 주안에서 누리는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자족하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행동이다. 즉,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다. 이는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성령의 인도는 곧 주님의 평안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상황도 이 평안을 빼앗을 수가 없다. 범사에 성령께 맡겨 환난과 고통 중에도 평안을 소유하여야 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14:27).

신기류 목사

King of Kings-왕 중의 왕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야기(King of Kings)’를 최근에야 보았다. 과연 기독교 영화사에 신기록을 세운 작품다운 가치가 있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저를 보내신 이유를 알게 하소서.” 이 기도대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인간들이 구원자이신 당신을 하나님이 보내셨음을 믿게 하고,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전 생애를 바치셨다. 비록 애니메이션일지라도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본질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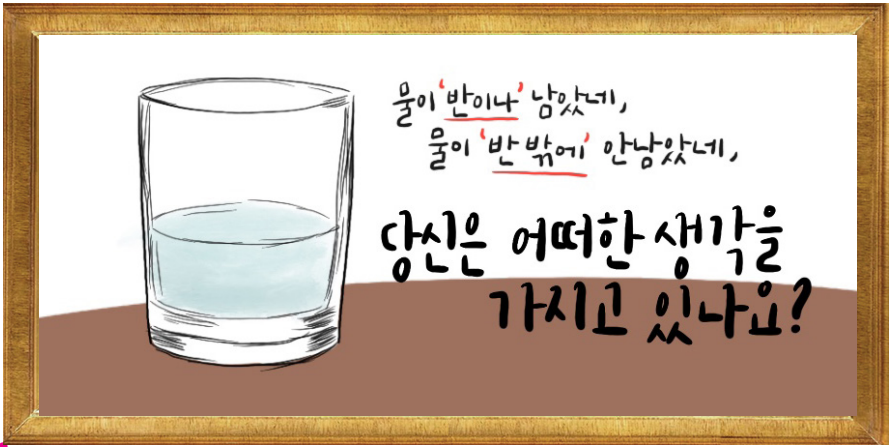
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막으로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도 감동적이었다. “사탄이 너의 영혼을 앗아가려 할 것이나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했으니 네 형제들을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붙들어라”(눅22:31~32). 이 말씀

을 하실 때 내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그분은 언제나 기도하고 계시며, 흔들릴 때마다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감사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인공 아이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수면 위로 올리시고, 대신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으시는 장면이었다. 양쪽으로 벌어진 팔, 점점 깊고 어두운 물속으로 사라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과 정확히 오버랩되어 나를 살리신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절정을 맞게 했다.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은 여전히 복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나는 이 진리를 전하는 삶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다.

김혜리 교육전도사



:: 생명의 말씀 ::

천국 소망

오래전, 하나님 품을 떠나있다가 돌아왔을 때였다. 꿈에 돌아온 탕자와 같은 나를 위해 천국 잔치가 열렸고,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셨다. “국진아, 앞으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을지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니?” 곧바로 “네, 예수님!”하고 대답하자 활짝 웃으시며 기뻐하시던 꿈이었다.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어렵고 답답할 때면 이 꿈이 떠오른다. 가끔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싶을 때는 ‘내가 할 것인데 왜 그러느냐’, ‘궁홀히 여겨라’고 하신다.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 요나는 적국의 도시인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된 것이 잔뜩 성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 도시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 육축까지도 아끼신다고 하셨다(욥3:10).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잊어버리면 마음이 딱딱해지고 만다.

중국과 북한을 드나들며 복음을 전하시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중국 공안에 잡혀 모진 고문을 받으셨다고 한다.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각종 고문을 오로지 눈물의

기도와 찬송으로 견디고 나오신 목사님은,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용서되지 않고 그 근처에 다시 가고 싶지 않을 정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일했단다.’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만 하셨다. 몇 년 후, 다시 방문하게 된 그 도시에서 목사님은 자신을 악독하게 고문했던 그 고문관들이 자신이 고문받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회심하여 목사와 신학생이 된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신실하게 일하셨던 것이다.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던, 그러지 않던, 주님 만날 그 날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온다. 그날 주님 얼굴 뵈을 때, 우리는 뭐라 말할 수 있을까? 그날 그 시 부끄러움 없기 위해서는 지금 눈물을 뿌리고 애통할지라도 주님 말씀에 힘써 순종해야 한다. 감정은 내려놓고 주님 말씀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기쁨 또한 우리 삶에 충만할 줄로 믿는다. 할렐루야!

이국진 사모

간증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다.

수요일 구역예배를 드리는 중이었다. 의자에 앉아 예배를 드리던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중심을 잃으면서 몸이 옆으로 기울어져 쓰러지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들 놀라 부축하는데 권사님 눈동자의 초점이 풀어지고 입에 침이 흘렀다. 나는 즉시 안수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귀신을 쫓았다. 잠깐의 긴장된 시간이 흐르고 권사님은 금새 거짓말처럼 깨닫히셨다.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던 성도들은 바로 눈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되었다.

지난주에는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다. 시어머니께서 벌써 3주째 식사를 못하신다는 것이다. 연로한 시어머니께서 3주 가까이 곡기를 끊다시피 하니 너무 걱정되어 우리 권사님께서 나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다. 권사님 맥으로 심방을 갔다. 기도해드리고 귀신을 쫓았다. 바로 그날 저녁에 밥을 차려오라고 하시며 식사를 하셨고, 며느리와 함께 이번 주 주일예배에도 나오셨다. 물론 예배 후에 점심식사도 잘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젠 어제 직접 들은 간증이다. 장로님 한 분이 권위 있고, 학식 있고, 재력과 권력 있는 사람들과의 모임에서 마음이 뜨거워져 전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알지 못하는 전문적인 얘기들로 그만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하나님,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속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단다. ‘부귀영화, 명예, 권력, 지식의 부요함도 영생에 이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라고 말이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유력자들이 들고 수궁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성령의 음성이었고, 말씀 선포였다.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길 원하신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시인하길 바라신다. 무엇보다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전4:20).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원한다.

장순천 목사

:: 청춘, 그 아름다운 이름 ::

당신의 방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당신의 방을 떠올려 보세요. 바닥이 깨끗한가요? 아니면 머리카락이 가득한가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있나요? 아니면 벗어놓은 옷가지가 무덤처럼 쌓여있나요? 거울이 반질반질한가요? 아니면 오래 눌어붙은 먼지로 뿌옇나요? 이불이 잘 개어져 있나요? 아니면 몸만 빠져나와 있나요? 서랍 속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나요? 아니면 뒤죽박죽 정신이 없나요? 당신의 방을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나요? 아니면 보여주기 부끄럽나요?

책 <청소력>의 저자 마쓰다 미쓰히로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방이 바로 당신 자신이다.” 당신의 마음 상태, 더 나아가 당신의 인생까지도 당신의 방이 고스란히 나타내고 있다고요. 오랫동안 하우스 클리닝을 해온 그가 수많은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내린 결론이래요. 방이 더러운 사람은 불행한 느낌이 강하고, 방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한 느낌이 강한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방이 더러운 사람에겐 불행감이, 방이 깨끗한 사람에겐 행복감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우리 방과 우리 마음의 상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악순환 혹은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거죠.

인생을 극적으로 변화시키는 청소의 힘을 저자가 몸소 경험했다죠. 사업이 잘되지 않자 나날이 초조해진 그는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 집을 방치하게 되었습니다. 음식물이 들러붙은 그릇들이 쌓이고, 더러운 빨래가 쌓이고, 집이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건 순식간이었죠. 일하고 들어와도 사방이 더러우니 충전되는 게 아니라 더더욱 초조하고 불행해져만 갔죠. 결국 사업도 실패하고 그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의 방처럼 육신도 점차 방치되었고, 얼굴은 깎지 않은 수염으로 께져져있고 몸에선 고약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기치 않게 고교 동창이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친구는 그의 방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서, “이게 뭐냐?” 하고는 그냥 돌아가 버렸대요. 그러고는 다

음 날 청소도구를 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방은 내가 치울 테니까 번기는 네가 닦아.”라고 말하며 그에게 걸레를 건넸대요. 급작스럽게 일어난 상황이라 어리둥절하고 있는 동안에 청소가 끝났고, 깨끗해진 방을 보며 처음으로 커다란 상쾌함을 맛보았다고 합니다. 충격적일 정도로요. 이 일을 계기로 청소업체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고, 지금은 다시 결혼도 하고 새로운 사업도 시작하고, 책도 쓰고 강연도 하고 있죠. 단지, 청소를 했다는 것만으로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을 지탱하는 자존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로 이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아는 나의 선행들, 나만 아는 나의 신앙심, 나만 아는 나의 양심적인 행동과 나만 아는 나의 방 같은. 깨끗한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방 청소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냉장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신은혜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죄든 우든 말씀에 역행하면 돌아서라
신앙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너는 어느 때나 하나님 편에 서라
-봉우



Good News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인생이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세월이 신속히 지나가는데 날아가듯이 지나간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들 하지만, 평균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다 오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시종을 알 수 없는

인생이기에 노후를 준비하는 일보다 사후를 준비하는 일이 더 소중하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도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죽은 뒤의 세상은 영원합니다. 유비무환이라고 미리 준비한 사람은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후를 준비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심판대 앞에서 땅을 치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 점 후회함이 없도록

노후보다 사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죽은 뒤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복락의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지옥입니다. “그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며,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상화평 목사**

::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용서해야 삽니다

지난달, 미국에서 서른한 살 청년이 총격으로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놀랍게도 그의 아내는 장례식에서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이 알려주는 증오에 대한 답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증오를 이기는 사랑,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나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주옵시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문을 통해 용서의 중요성을 봅니다. 그러나 정작 남의 작은 잘못도 쉽게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행동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꽤 씹하게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같은 크리스천일 경우 용납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돌아온 탕자의 형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었죠.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형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동생을 기꺼이 포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마음도 이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화목하고 사랑하길 원하시는데,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쓴 뿌리가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마귀가 쉽게 틈타는 통로가 되고 결국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명하신 것은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하고 살리려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지나간 것은 다시 기억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를 통해 진정한 자유와 평안, 기쁨을 온전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전소희

:: 신앙에세이 ::

시도하지 않으면

학창 시절, 연예인을 꿈꿔본 적이 있다. 당시에는 길거리 캐스팅도 많아 ‘누군가 데려가 주겠지’, 은근슬쩍 기대도 하였는데, 기대만 하다 끝났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았다.

이후 아홉 살 어린 동생도 그러한 꿈을 꾸길래, ‘여러 기획사 오디션을 보며 시도해보라’ 조언해주고, 같이 따라가도 주었다. 지금은 그 꿈을 이룬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올해 중학생이 된 첫째 아들이 한 친구를 전도하여 몇 차례 중고등부 예배에 데려갔다. 그 친구 아빠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못마땅했는지 중고등부 예배처에 찾아가 소위 꾀판을 치고 갔단다. 다행히 현장에 아이들은 없고, 중고등부 목사님과 두 명의 교사만 있어 면담 후 돌아갔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듣고 괜히 죄송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래, 아이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생각하며, 그 친구가정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들어간 것을 감사하며 기도해주었다.

작년부터 청장년부 한 집사님의 추천으로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다. 추천해준 책을 보고 따라하며 시도해보고, 또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식 채테크를 하였다. 작년에 어느 정도 수익이 발생하였고, 올해는 그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보았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다시금 들었다. ‘작년에 평소처럼 아무런 채테크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익도 결과도 없었겠구나.’ 도전하고 시도해야 꿈도 이루어진다. 전도도 해야 마귀의 발악이든, 하나님의 기적이든 나타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눅19:23).

박찬영 집사

서울성전 건축헌금 계좌안내

국민은행 026401-04-297823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계좌 송금 시
성함과 소속교구(교회) 순서로
기입해주세요

노랑진 교육관 기도회

장소: 노랑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저녁 8시 (월, 화, 목, 토)
문의: 02. 533. 9191